LG전자, 글로벌 사우스 공략 가속

'AI홈' 등 중동·아프리카 현지 특화

UAE서 'LG AI 홈' 솔루션 소개
모래·먼지 등 현지환경 맞춤 대응
대가족 문화특성 반영 신제품 전시

LG전자가 세탁물의 무게, 옷감 종류, 오염도를 분석한 뒤 최적의 세탁·건조 패턴을 적용해 옷감 손상을 줄여주는 'AI DD모터'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현지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AI 홈과 현지 특화 신제품 발표회를 잇따라 개최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중동·아프리카 주요 거래선을 초청해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가전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제시하고, AI를 탑재한 현지 특화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먼저 'LG AI 홈'에서는 고객들이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다이닝 등 다양한 공간에서 AI 홈허브 '씽큐 온'과 'LG 씽큐' 앱을 활용해 가전 및 IoT 기기가 하나의 완결된 솔루션으로 작동되는 통합 AI 홈 솔루션을 체험했다.

AI 홈 솔루션은 가전과 IoT 기기를 24시간 연결 상태로 유지하며,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다양한 제품들을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LG전자는 ▲모래·먼지가 많은 현지 환경을 고려한 공기질 관리 ▲보안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한 홈 보안 시스템 ▲중동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구현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주택을 타깃으로 한 'LG AI 홈' 기반 B2B 사업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사, 호텔, 인테리어, 스마트홈 업체 등 통합 솔루션 수요가 높은 고객군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신제품 전시존에서는 AI로 한층 진화한 가전 신제품과 현지 생활패턴에 적합한 혁신 기능이 대거 공개됐다. LG전자는 대가족 문화 특성을 고려해 세탁기, 건조기, 워시콤보, 워시타워 등 다양한 세탁가전의 대용량 라인업을 확대한다. AI가 세탁물의 무게·오염도·재질을 분석해 최적화된 맞춤 세탁건조를 하는 'AI DD 모터' 기술도 강조했다. 또 사용 패턴을 학습·분석하고 냉기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AI 냉기케어 시스템'이 적용된 냉장고는 대용량 식재료 보관 수요가 높은 현지 특성과 부합해 주목받았다.

LG전자 중아지역대표 정필원 전무는 "제품 본원의 경쟁력에 AI를 더한 AI 홈 솔루션과 현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들로 파트너사와 협력을 공고히 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重, 사우디 호위함 수주 팔 걷어

WDS 참가… 현지화·산업협력 투트랙

HD현대중공업이 현지화·산업협력 전략을 앞세워 사우디 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존재감을 키운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오에스티(EOST)와 연합 전시관을 구성해 첨단 함정 건조 기술과 해상 방위 역량을 종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비롯해 총 8종의 함정을 선보인다. 또 전시회 기간 사우디 국방부와 해군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패키지 솔루션을 강조할 계획이다. 설계·건조·사업관리 역량과 페루 시마조선소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건조 및 MRO까지 포함한 실적 기반의 경험과 차별화 전략을 소개한다.

사우디 정부가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단계적 현지화 방안도 제시한다. 향후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WDS 기간 중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투자부와 LIG넥스원, STX엔진 등 국내 기업 12개사와 '사우디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사우디 산업 참여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우디 시장에 동반 진출하기로 했다. /유혜온 기자

공간 키우고 효율성 강화… 가격 거품 '쏙'

YG의 CAR TALK 카톡

푸조 '올 뉴 5008'

10년만에 완전변경… 상품성 대폭 개선

푸조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주행모습.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 백화점 회전 구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부담없이 주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밀리 SUV다. 여기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까지 압도적인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바로 프랑스 완성차 브랜드 푸조의 7인승 SUV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이하 올 뉴 5008)가 그 주인공이다. 올 뉴 5008은 2세대 이후 10년 만에 완전변경을 거치며 실내 공간을 키우고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푸조의 올 뉴 5008의 성능 분석을 위해 지난 2일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왕복 약 60㎞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강인해졌다. 차량 중앙에 위치한 푸조 엠블럼을 중심으로 통일된 톤의 그라데이션 프론트 그릴을 배치해 미래적 분위기를 담아낸다. 발광다이오드(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사자가 발톱으로 할퀸 듯한 3개의 주간주행등(DRL)은 푸조 고유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다.

실내 공간은 7인승 SUV로 운영하기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았다. 길이 4810㎜, 너비 1875㎜, 높이 1705㎜로 2:3:2 구조의 7인승이다. 이전 세대보다 길이 160㎜, 너비 30㎜, 높이 55㎜가 확대됐다.

운전석에 앉으면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일직선으로 합쳐져 전체적으로 깔끔함이 묻어났다.

주행 성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48V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도심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 모드로 운행하며, 정숙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는 각각 136마력/23.5kg·m, 15.6kW/5.2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합산 최고 145마력으로 일상 주행에 최적화된 민첩하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했다. 연료 효율성도 뛰어났다. 복합 연비(13.3㎞/L)를 훌쩍 뛰어넘는 15.38㎞/L를 기록했다.

가격은 알뤼르 트림 4814만원, GT 트림 5499만9000원이다. 올 뉴 5008이 출시된 국가 중 최저가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 설비폐쇄' 갈등 격화

사측 "적자 지속… 구조조정 불가피"
노조 "존속 전제로 방안 제시해야"

철근 수요 감소와 설비 과잉을 이유로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일부 설비 폐쇄를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적자 구조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공장 존속을 전제로 한 대체 사업·전환 투자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인천공장 노조는 지난 3일과 5일 특별 노사협의회를 열고 설비 폐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폐쇄 철회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사측은 휴업·고정비 절감·가격 안정화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했으나 누적 적자 상황에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설비 폐쇄의 배경으로 철근 수요 감소와 구조적인 설비 과잉을 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철근 수요는 연평균 약 1000만톤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700만톤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철근 설비능력은 약 1250만톤으로 수요를 크게 웃돌아 설비 과잉 상태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설비를 줄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규 설비 투자나 대체 물량 등 먹거리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별도 대안 없이 폐쇄만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설비 폐쇄에 따른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유휴 인력을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효율 설비를 정리해 고정비 자체를 줄이고, 생산을 잔여 설비에 집중해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톤당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철근은 건축용 자재로, 건설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 국내 업체가 버티기 어렵다"며 "수요가 없는 환경에서 과잉 설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조도 일정 부분 조정과 혁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고, 수용 범위는 추가 협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삼성, '무안경 3D 사이니지' 기술력 입증

'ISE 최고의 제품상' 등 글로벌 수상

삼성전자의 초슬림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서 '최고의 제품상(Best of Show at ISE)'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AV 테크놀로지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제품상으로 선정됐다.

매체들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고의 제품상' 이외에도 북미와 영국 주요 AV 매체가 별도로 심사하는 어워드도 휩쓸었다.

또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어워드가 선정하는 '최고의 혁신 디스플레이 기술상(Innovation in Display Technology)'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금호타이어, 지난해 매출 4.7조… 창사이래 최대

미·유럽 등 주요시장 매출 증가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4조701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매출액을 달성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금호타이어는 2025년 연결기준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4조7013억원, 영업이익 5755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조1601억원(영업이익 1453억원)으로,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발 관세 부과, 광주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달성한 실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액 5조1000억원 달성,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 47%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공급 비중 30% 확보 등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